



정교회주보

제2529호
2025년 6월 15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마태오 제1주일
(모든 성인들의 주일)

아모스 예언자
성 예로니모스 수도자
(제8조 • 조과 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82
- 모든 성인들 찬양송 269
- 성당 찬양송
- 모든 성인들 시기송 269
- 사도경 : 히브리 11,33~12,2 ... 269
- 복음경 : 마태오 10,32-33; 37-38;
19,27-30 108
- 영성체성혈송 27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사진 설명

성상대 -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은 성상대의 중앙에 있는 문을 가리킨다. 보통 두 개의 기둥으로 지탱하는 아치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두 쪽의 문에는 성모 회보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통과하신 문으로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 이런 연유로 '전례 준비 의식'에서 사제는 아름다운 문을 열면서 이렇게 외운다.

"지극히 복되신 테오토코스여, 우리에게 당신 자애의 문을 열어 주소서. 당신께 바라오니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도움으로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당신은 그리스도 신자들의 구원이시나이다."

즉, 성모님에게 당신의 모성애(母性愛)로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문은 성직자만 출입할 수 있다.

사진은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성당의 성상대이다.

니케아 제1차 세계 공의회 1700주년 기념 세계 총대주교와 총대주교청 공의회에서 보내는 서신

(지난 주에 이어서)

니케아 공의회는 교회의 교리적 정체성과 교회법적 구조 형성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신앙과 교회 질서에 관한 문제들을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이 공의회 소집 1700주년은 그리스도교로 하여금 고대 교회의 신앙 전통에 대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오해에 맞서 싸운 공동 투쟁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신자들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 사명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니케아 제1차 세계 공의회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즉 ‘동일본질(ὁμοούσιος)’ 개념이 가진 구원론적 차원과 인간론적 차원을 되새겨야 할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론과 인간론 사이의 뿔 수 없는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늘날 인간에 대한 혼란이 깊어지는 시대에,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초월적 인간’이라는 개념이 열린 가능성과 인간의 자기 신격화 시도로 제시되는 이 시대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한 응답은 곧 ‘신인(神人)’의 존재 안에서, 즉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찾아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신이 된 인간’이라는 환상에 대해 해답을 제공해줍니다. 따라서, ‘니케아 정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 요소들로 되돌아가자는 초대이며, 그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진리를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성서에도 “나를 보았으면 곧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요한 14:9)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콜라스 카바실라스 성인도, 성육화하신 하느님의 말씀(로고

스)은 “삶과 행실과 모든 면에 있어서 참되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처음이자 유일하게 보여주셨다”(카바실라스, 그리스도 안의 삶, PG 150, 680)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로부터 양분을 얻고, 이 진리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진리(그리스도)의 옷, 곧 “하늘의 신학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있는 교회는 언제나 바르게 진리를 가르치며, “경건의 위대한 신비”를 찬미합니다. 또한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며, “저물지 않고, 시간의 흐름도 없고, 끝이 없는 날”을 바라보며(성 대 바실리오스, 6일 창조론에 대하여, PG 29, 52), 즉 앞으로 다가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신학의 과제는 교리의 구원론적 차원을 드러내고, 그것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교회의 공동체적 삶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민감성과 진정한 관심, 인간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대한 민감성과 관심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육화하신 하느님의 말씀(로고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그분의 구원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요한 15:12)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 응답을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모든 세상과 피조물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만물의 주님이시며 사랑의 하느님이신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고 영화로운 이름을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성부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성령께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2025년 6월 1일

삶 속에 스며든 신앙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죄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존엄함과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내의 고양이를 미워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고양이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차를 몰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고양이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고양이는 길 한가운데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 남자는 다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고양이를 놓아주었는데, 그 전날과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에 그는 20킬로미터쯤 멀리 차를 몰고 가서는 왼쪽으로 틀고는, 다리를 건너 두 번이나 우회전을 한 다음, 다시 좌회전을 세 번 하고는 기차 건널목을 건너 다음, 다시 우회전을 하고는 이윽고 고양이를 차 밖으로 내보내서 가게 하였습니다.

그 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양이를 봤어?” 그러자 아내는, “네, 왜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양이한테 전화기를 줘봐.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봐야겠어...” 그가 성이 난 채로 대꾸하였습니다.

보셨나요? 우리가 제아무리 그리스도를 피해 달아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디어가 필요한가요?

아 토스 성산의 한 수도자가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미디어가 필요치 않고, 우리가 길들이는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현대세계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모두를 마치 통닭구이 속에서 돌아가는 치킨처럼 어지럽게 만드는 정보과잉의 회오리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몰아내고, 우리 내면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티리오스 대주교 추도식

오늘 각 지역 성당에서는 성찬 예배 후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3주기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축일 금식 시작

내일(16일)부터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축일 금식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는 수, 금요일을 제외하고 생선이 허용됩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축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 축일 성찬예배

지난 수요일(11일) 성 바르톨로메오스 축일을 기념하여 성찬 예배가 각 지역성당에서 거행되었으며 축일을 맞은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특별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 서울 성당 보제 신품 성사

지난 오순절(6월 8일) 성찬예배에서 미국인 교우 크리스토퍼 존커(Christopher Jonker)의 보제 신품 성사가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로만 카브착 대신부,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 참석한 많은 신자들이 선교회관에서 열린 축하 리셉션과 음악공연을 함께 하며 ‘합당합니다’라고 새로운 보제를 성원하며 축하하였습니다.

■ 서울성당 유아 세례성사

지난 6일(금), 성 막심 성당에서 이태오 표도르, 이수지 소피아 남매가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인천 성당 다니엘 대신부 입원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께서 입원하여 외과수술 후 회복중 이십니다. 대신부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울산 성당 봄 야유회

지난 오순절(6월 8일) 성찬예배 후에 울산 대공원으로 모인 신자들이 함께 봄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재밌는 게임을 통해 친교를 나누며, 한 마음을 이루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성의 샘터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라

에바그리오스 사부가 이렇게 조언했다.

“그대는 자주 미래에 올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 그대がい 세상에서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대의 영혼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